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2030

2026. 1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왜 중견기업인가?	1
II. 중견기업의 現 주소 및 시사점	3
III. 정책 방향	7
IV. 추진 전략	8
1. 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	8
2. 성장사다리 강화	11
3. 5극3특 지역기반 확충	17
4. 미래 패러다임 대응	21
V. 추진 계획	24

I. 왜 중견기업인가?

◇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가치사슬의 가교이자 미들파워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이자 대기업의 협력기업으로서 ‘복합적 지위’를 보유한 산업의 **전·후방 연결고리**
-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민첩성, 대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복합적 주체’로, 산업 생태계에 혁신과 역동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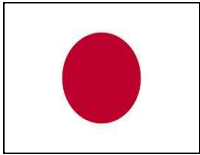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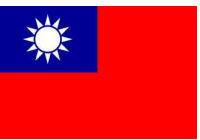
◇ 중견기업은 구조 혁신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체질 전환 중심축

- 선진 경제구조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된 호리병형에서 탈피하여 중견기업이 튼튼한 **항아리형 생태계** 구축
 - * 美 중견기업 : 기업수 3%, 고용 30%, GDP 33% (NCMM(국립중견기업센터) 통계)
- 선진국의 중견기업은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슈퍼 Z(히든 챔피언)** 잠재력 보유
 - * 히든챔피언(해당분야 세계 3위, 매출 50억유로 이하) 현황('22, 개社)
: ①독일(1,573), ②미국(350), ③일본(283), ⑥프랑스(111), ⑧중국(97), ⑩한국(22)
- 전체 제조 중견기업의 **85%가 소·부·장 기업**으로, 국가 공급망 핵심

◇ 중견기업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앵커기업

- 중견기업은 지역에 36%가 위치하고, 중소기업 협력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과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등 산업 연관효과 제고 가능
-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위기 시 완충 기능을 통해 지역경제 등 전·후방 산업 붕괴를 방지하는 방파제

⇒ **경제 체질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동력化 필요**

국가	정책 동향
 독 일	■ 미텔슈탄트 이니셔티브('06년) → 육성전략('19년) * 미텔슈탄트(Mittelstand) : 중소·중견기업 포괄 - 상속세 개혁 : 고용 유지시 상속자산의 최대 100% 공제 - One-in One-out 도입 : 규제 신설시 불필요한 규제 폐지 - 미래펀드(Zukunftsfonds) : 100억유로, 스케일업·벤처 지원
 프랑스	■ 중견기업 국가전략('20년, '22년) * 프랑스 중견기업 : 근로자 250~5,000명 및 매출 0.5억~15억유로 또는 자산 0.43억~20억유로 - 팩트 뒤트레유(Pacte Dutreil) : 기업승계시 대상 주식가치의 최대 75% 상속·증여세 면제 - 세제 : 기업부가가치분담금(CVAE) 폐지 추진('28) : R&D에 年 1억유로까지 30%, 초과분 5% 공제 - GX 지원 : 녹색산업투자세액공제(친환경 설비투자의 20~40% 환급), 녹색대출(10년간 300만유로까지 무담보 대출) - ESG 공공조달 우대 : ESG 미달기업 배제, 친환경 인증 가점
 일 본	■ 중견기업 성장촉진 패키지('24년) * 일본 중견기업 : 종업원 2,000명 이하(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 세액공제 : 임금 인상시 법인세 최대 35% 공제 - 성장투자보조금 : 비수도권 투자 중견기업에 최대 50억엔 지원 - GX 지원 : 10년간 총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 발행 - M&A 세제 : 투자액의 최대 70%를 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 적립(해당 사업연도 비용 처리 → 5년간 수익 분할 산입)
 대 만	■ 중견기업 도약 계획('12년) → 생산성 4.0 정책('15년) - DX 지원 : 중견기업·협력사에 360억 대만달러(약 1.5조원) 투입 - 2년 주기로 우수·잠재 중견기업 선정 및 R&D·인력·IP·판로 등 패키지 지원

II. 중견기업의 現 주소 및 시사점

< 개 요 >

- ◇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1.5%에 불과하나, 매출의 15.3%, 수출의 17.9%, 고용의 13.9% 담당 (우리경제의 허리)
- 청년일자리('24년 청년채용 6.2만명), 고용안정성(중견기업 신규직원 중 86%는 정규직으로 채용), 근로여건(대출 초임 3,941만원(평균 3,675만원)) 우수
- 중견기업 6,474개社 中 제조업 분야 34%, 비제조업 분야 66%

< 기업군별 국가경제 기여도 ('24 결산 기준) >

기업군	기업수(개社)	매출액(조원)	수출액(억불)	종사자 수(만명)
중소기업*	412,516 (97.6%)	2,918 (43.3%)	1,151 (16.8%)	838 (66.5%)
중견기업	6,474 (1.5%)	1,031 (15.3%)	1,227 (17.9%)	176 (13.9%)
대기업	3,608 (0.9%)	2,795 (41.4%)	4,472 (65.3%)	246 (29.6%)

* 소상공인 포함시 1,090만개社

1 現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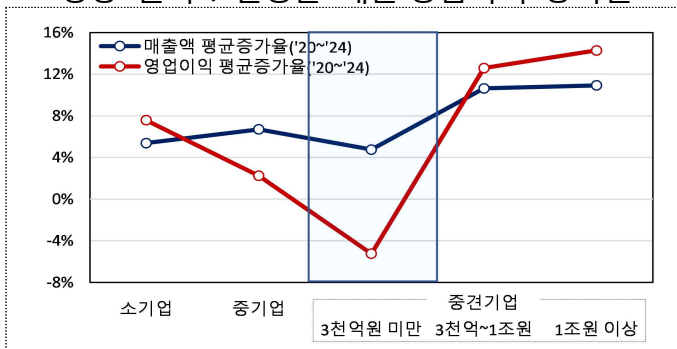
- (성장사다리 약화) '22년부터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는 증가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정체

<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기업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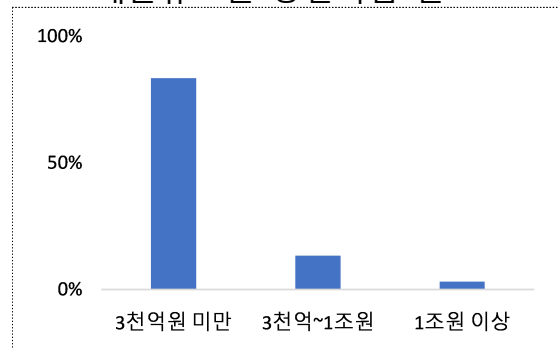
구분	'20	'21	'22	'23	'24
중소→중견	120	111	△54	△273	△99
중견→대	87	197	79	84	2

- 회귀 기업의 99.5%가 초기 중견기업(年 매출 3천억원 미만)이며, 전체 중견기업 中 초기 단계 중견이 87%에 달해 성장 정체 구간 집중

< 성장 절벽 : 연평균 매출·영업이익의 증가율 >



< 매출규모별 중견기업 분포 >



□ **(산업별 불균형)** 업종별로 중견기업의 위치와 성장이 특성별로 상이

< 업종별 중견기업 기업수 및 매출 비중('24, log scale) >



*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중견기업 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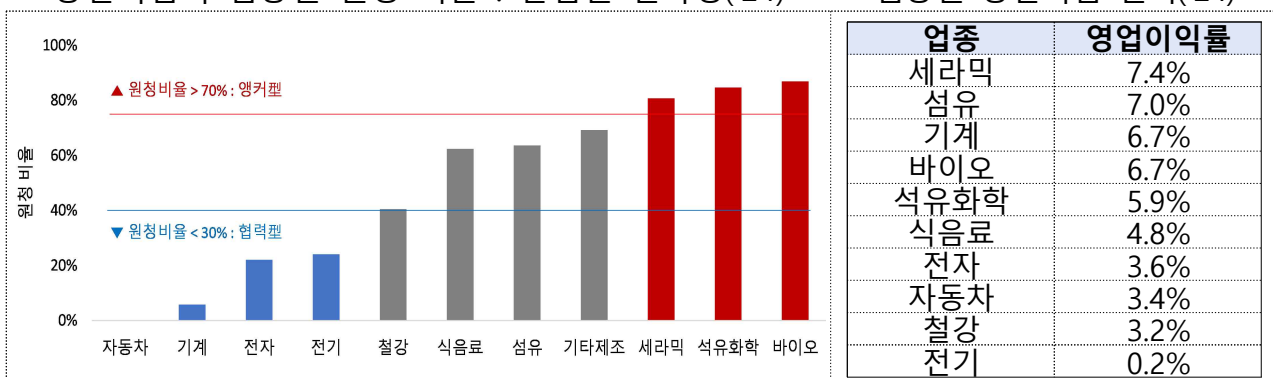
- (1사분면 : 향아리型) 특화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위기징후(철강·세라믹), 내수·제네릭 모델(바이오), 모듈 대량납품(자동차) 등으로 외형적 성장
- (2사분면 : 中堅 정체) 부가가치가 완성품 기업에 집중되거나(전자), 범용제품 위주로(석유화학), 성장동력 부족 및 과당경쟁 존재
- (3사분면 : 호리병型)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거나(기계·전기), 성숙산업으로(섬유), 高부가가치화에 성공한 소수의 중견기업만 생존
- (4사분면 : 과점型) 규모의 경제구조로 소수 中堅이 시장 주도(식음료)

□ **(앵커기업 부족)** 자동차, 기계, 전자, 전기 등 대부분 수요기업 사양에 맞추어 납품(Build-to-Print)하고 있어 ‘앵커型 중견’이 적음

* 앵커型 기업 :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공급망 중심축

- 반면, 전속성이 낮을수록 성과가 큰 경향성 보유(바이오, 세라믹 등)

< 중견기업의 업종별 원청 비율 : 산업별 전속성('24) > < 업종별 중견기업 실적('24) >



업종	영업이익률
세라믹	7.4%
섬유	7.0%
기계	6.7%
바이오	6.7%
석유화학	5.9%
식음료	4.8%
전자	3.6%
자동차	3.4%
철강	3.2%
전기	0.2%

- **(지역 양극화)** 중견기업은 전체 산업 대비 지방 비중이 작으나, 지난 5년간 지방 中堅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

* 비수도권 中堅 비중 변화('20→'24) : 기업수 +0.3%p, 매출 +2.1%p, 고용 +1.8%p

< 전체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수도권 비중('24) >

	기업수(개社, %)	고용(만명, %)
전체 기업(활동기업 기준)	3,563,805 (46.6)	923.1 (39.6)
중견기업	2,339 (36.1)	44.9 (25.5)

* 출처 : 기업생멸통계, 중견기업 기본통계

- 지방 中堅 매출 중 60% 이상을 제조업이 차지하며, 특히 지역 중소 도시의 경우 제조 중견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

* 비수도권 중견기업 매출액('24) : 제조업 217조원(65%), 비제조업 116조원(35%)

< 소멸위험지역 소재 제조 중견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 >

- **한국카본(주)** (밀양, 소멸고위험) : 年 매출 9,100억원으로, 함양·보은 등 주변 지역에 공장 확장 및 60여 개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 한국카본 종업원 수 ('18) 495명 → ('20) 505명 → ('24) 753명
- **(주)심팩케이디에이** (김해, 소멸위험) : 年 매출 1,400억원으로, 김해권 100여 개 영세 뿌리기업을 협력사로 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 김해 자동차부품기업 1,200여개 중 54%가 매출 10억원 미만 영세기업

- **(공급망 대응)** 제조 중견기업의 85%는 소·부·장 기업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해외 밸류체인 진출의 기회 부각

* 대주전자재료 : 프렌드쇼어링 일환으로 파나소닉·테슬라에 실리콘 음극재 공급
* 이수페타시스 : 공급망 분화로 엔비디아, 구글 등에 초고다층 기판(MLB) 공급

- 새로운 패러다임인 AX는 중견업계 등 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인적자원 활용 등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나, 아직은 걸음마 수준

* 중견기업의 약 20%가 AI를 도입했으며, ERP(48%), LLM(42%), 챗봇(18%) 등 기초 단계

- NDC 등 환경규범*은 보호무역 아래 장벽화되고 있어 탄소 多배출 중견기업(철강 170개社, 화학 221개社 등)의 GX도 시급

* (EU)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韓)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 공시('28~),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는 '31년부터 시행

- 한편,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및 공급망 타격 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제조 中堅의 SX(안전전환) 필요성 대두

	As-is	To-be
성장사다리	역진적 성장	성장 다이나믹스 회복
정책 방향	평균적·분산적 지원	업종별·성장단계별 차별화
지역 성장	수도권 중심	지역 micro 대기업 육성
미래 패러다임	전통적 제조 시스템	AX·GX·SX 혁신

□ 기업의 역진적 성장을 되돌리기 위한 동태적 성장 재점화 필요

- 성장할수록 규제는 증가하고 지원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 개선

* 초보 중견은 中소 졸업 후 지원절벽, 선도 중견은 대기업 진입시 성장 걸림돌 경험

- 성장절벽을 겪는 초보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지원역량 집중

□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중견기업 성장 역량 강화

- (자동차·전자) 미래차 전환 및 독자 경쟁력을 보유한 앵커 중견 확대

- (기계·전기) 미래 IP 확충을 통한 원천기술 해외의존 탈피

- (바이오·식음료) 내수 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 촉진

* 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 정체 : ('22) 1,210억불 → ('24) 1,227억불

□ 5극3특 지역 발전과 중견기업 성장 연계

-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작지만 영향력이 큰 지역 거점기업화

□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AX·GX 역량 확충

- 중견기업 생태계 AX 확대를 통한 공정 및 제품 개발 혁신 가속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GX(탄소중립, Scope 3 대응 등) 및 SX(안전 전환, 화재시설 투자 등) 강화 필요

III. 정책 방향

역동 성장의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미들파워

	As-Is	To-Be('30년)
앵커기업 비중	32%(687개社)	40%(960개社)
매출 점유율	15%(1,031조원)	30%(1,590조원)
비수도권 비중	36%(2,339개社)	50%(3,780개社)

- ① (더 강하게) 독자적 기술 역량을 가진 '앵커 중견기업' 확충
- ② (더 크게)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사다리 복원과 시장 확대
- ③ (더 넓게) 지역 중견기업 성장 강화 및 AX·GX 미래 패러다임 전환

1 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

- 앵커형 中堅 육성을 위한 차세대 IP 기술력 확보
- 중견기업의 공급망 핵심 병목품목 상용화 지원
- 내수 중심 中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확대

2 성장사다리 강화

- 중소→중견→대기업 경계에서 성장지원 연계 강화
-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등 성장역진적 제도 재설계

3 5극3특 지역기반 확충

- 지역 內 '성장엔진 핵심 중견기업' 육성
- 中堅 관련 협력기업의 지역 생태계 형성 촉진
- 지역의 서비스 중견기업 육성 및 高부가가치화

4 미래 패러다임 대응

- 속도감있는 중견기업 AX·GX 지원
-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

IV. 추진 전략

전략 1 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

- ◇ (혁신) 앵커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IP 기술력 확보
- ◇ (공급망) 중견기업 공급망의 핵심 병목품목에 대한 상용화 지원
- ◇ (시장) 내수 중심 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확대

1 차세대 IP 기술력 확보

- (데카-코어 프로젝트) 중견기업 중심으로 개별 부품·소재를 넘어선 산·학·연 융합 방식의 10대 초격차 시스템 기술(Deca-core) 확보('27~'35, 1조원)

시스템 단위 대형 국책 R&D 사례 : TDX(전전자교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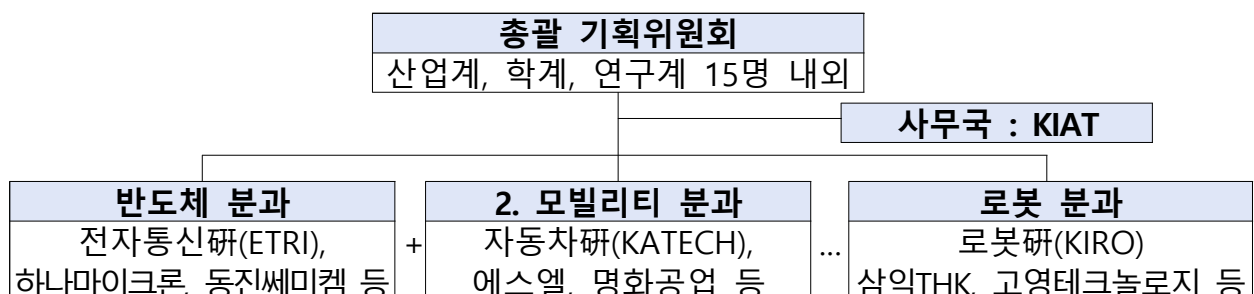
- (배경) '80년대 초 10만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디지털 교환기' 개발 추진
- (역할·성과) 연구소-기업-수요처 컨소시엄을 통해 세계 10번째 독자 생산국 진입
 - 연구소(ETRI) : 시스템 설계, 핵심 S/W 개발 등 고위험 원천기술 연구 주도
 - 기업(통신 4사) : H/W 장비 제작, 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 담당
 - 수요처(한국전기통신공사) : 초기제품 구매를 통한 시장 창출

- (사전 기획) 업계 및 기술·공급망 전문가로 데카-코어 기획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과제 발굴('26.10~'27.2월)

* 초격차기술 예시 : △AI 데이터센터 첨단 공조시스템, △나트륨이온 배터리, △염기교정 유전자치료, △차세대 소형·안전 원자로 등(MIT 테크놀로지 리뷰, 10대 미래기술 중)

- (선도사업 수행) 월드클래스플러스 예산('27, 100억원) 및 신규 브릿지 R&D 사업('28~'32, 900억원)을 통해 선도 프로젝트 착수(1개 과제)
- (본사업 추진) 사전기획점검('27.11~'28.3월)을 거쳐 '29년 본격 추진 (~'35, 9,000억원(9개 과제))

< 데카-코어 기획위원회 구성(안) >



- **(차세대 IP 선점)** 10대 초격차 시스템 기술의 IP 확보 강화(지재처, 국표원)
 - (IP R&D) R&D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개발 IP 충돌 회피 및 R&D 방향 설정
 - 미국·유럽 등 핵심시장의 유망·공백특허 선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지재산 연계 R&D 전략 지원(IP-R&D, '26년 302억원)
 - FTO* 분석 및 해외IP센터 연계 분쟁대응 지원
 - * Freedom to Operate : 신제품 출시 전 기술 분석조사를 통해 특허 침해 리스크 분석
 - (표준화) 국제 표준화 동향에 부합하는 표준필수특허(SEP)* 확보 추진
 - *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구현할 수 없는 특허

2 중견기업 中心 공급망 강화

- **(병목기술 확보)** 중견업체 수요 기반 공급망 핵심 병목(bottle-neck) 및 해외의존 품목을 bottom-up 방식으로 발굴·개발('28~'38, 1,000억원)
 - * 5년간('28~'32) 매년 신규과제 선정, 과제당 최대 7년간 기술자립화 지원(원천기술 확보 3년 → 글로벌 수요기업 Spec-in 4년)
 - 무역데이터 분석, 중견업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공급망 수급애로 후보품목 풀(pool) 구축('26.下)
 - * 例) 아날로그 반도체 :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증폭·제어하는 반도체로, 주로 미국에서 수입(ADI, TI 등), 공급망 교란 및 수요 폭증으로 납기 지연 및 가격 상승
 - 후보품목에 대해 KIAT, KEIT 등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개발 타당성, 시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기획 추진('27)
- **(사업화 연계)** 공급망 핵심품목의 설비투자 및 구매 지원 (산업부·재경부)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입지·설비 투자금의 30~50% 지원('26년 1,000억원)
 - 수요 중견의 국내 생산 소부장 구매 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투자비의 최대 100%, 0.3~0.5%p 우대금리) 지원(공급망 안정화 기금, '26년 약 10조원)

3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확대

□ (수출 中堅 확대) 내수 中堅(수출 10% 미만) 수출 지원(~'30년 300개社)

* 중견의 71%(약 4,500개社)는 내수기업으로, 그 중 13%(약 840개社)는 수출 고려 中

○ 산업부·중견련·KOTRA 합동으로 수출 잠재기업 발굴 및 선정규모를 매년 20~30개社('23~'25)에서 50개社 이상으로 확대

○ 19개 기관(법무부, 관세청, 조달청 등)과 연계하여 수출 전방위 지원

<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지원 내용 >

구분	지원 내용
판로·물류	■ 긴급지원바우처를 통한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1억→1.5억원, KOTRA) ■ 중견급 이상 전문무역상사와의 매칭 우선 추진(무역협회) ■ G-PASS 기업* 지정 및 해외 공공조달 상담회 참가, 입찰정보 제공(조달청)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 ■ 해외 배송료 할인 지원(최대 60%, FEDEX·DHL)
금융	■ 수출 초기자금 및 대금 미회수 위험 대비 금리 우대(최대 1.2%p, 수은) ■ 수출신용보증 등 보증한도 우대(최대 2배, 무보) ■ 라이징 리더스 300 기업에 우대금융 제공(최대 300억원 1.0%p, 우리은행) ■ 운전자금, 시설자금, 무역어음 대출시 우대금융 제공(최대 1.0%p, 하나은행)
인증	■ 해외인증 소주기(준비→신청→심사) 1:1 전문가 자문 지원(국표원)
법률	■ 해외 진출시 법률 애로사항(서류 검토, 법령 해석 등) 자문(법무부)
관세	■ 국가별 복잡한 통관절차 및 FTA 활용 등 관세 컨설팅(관세청)

□ (선단型 해외시장 개척) 대·중견·중소 동반진출 지원 (산업부, 중기부)

○ 대기업·시중은행 출연재원을 활용해 대기업 협력 중견·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제공(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출연금 대비 최대 20배 보증, 무보)

○ 대·중견-중소 동반진출시 운영자금 및 매출채권 매입 보증 등을 통해 현지법인 유동성(시설·운전자금 등) 지원(무보)

○ 대·중견(주관)-중소(협력) 컨소시엄 해외 공동진출 지원(수출상담, 현지 마케팅, 제품 현지화 등, 참여 중소기업당 최대 2억원, 대중소협력재단)

□ (진출기반 마련) 중견기업 전용 지원센터 확대(獨 1개소 → 美, 中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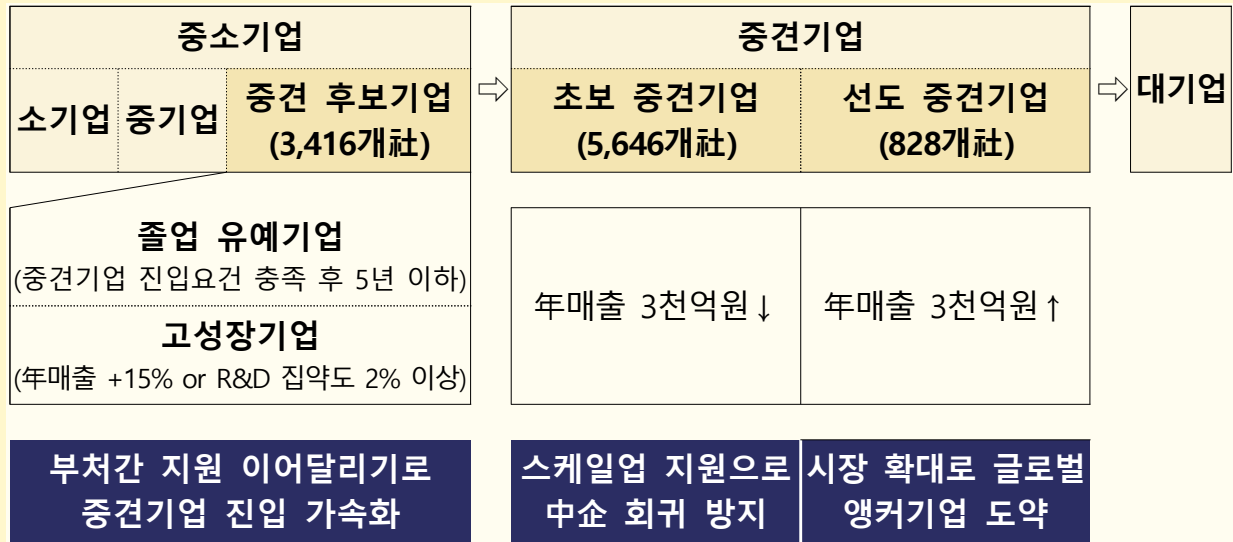
현지 파트너십 구축, M&A 기업 발굴 등 해외 밸류체인 진출 지원

* 중견기업 수출희망 국가 : 미국(32%), 중국(16%), 인도(11%) 順('25.12, 실태조사 결과)

전략 2

성장사다리 강화

◇ 중소→중견기업, 중견→대기업 등 경계의 영역에서 성장 경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역동적 성장사다리 복원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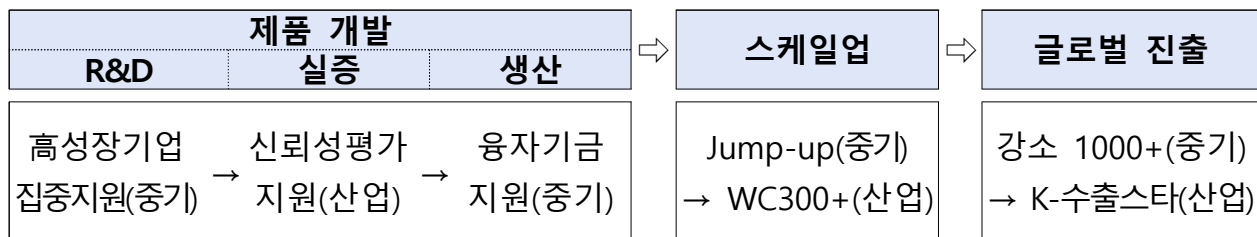


1

성장 지원 연계성 강화

① 중견 후보기업 : 부처간 지원 이어달리기

< 중견 후보기업 경영 쏠주기 지원체계 구축 >



□ (R&D) 성장성 보유 중소기업 발굴 집중 지원 (중기부)

- 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SIMS)을 고도화*하여 중견 후보기업을 포함한 '유망 중소기업 DB' 확충

* 既구축 데이터(업종, 매출, IP 등)를 토대로 기술력, 성장성·잠재력 등 기업 성장데이터 확보

- DB를 바탕으로 유망 업종·기술 선정 및 중소기업 R&D 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 집중 지원

□ **(실증)** R&D 성과와 **인프라·실증 지원사업 연계** 확대 (산업부, 중기부)

- 中企 R&D 우수기업에 대한 산업부 신뢰성·양산평가 우선 지원 추진

< 신뢰성·양산평가 인프라 및 실증사업 >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 (’26, 200억원)	성능·환경·수명 등 신뢰성인증 획득 지원
	양산성능평가지원 (’26 250억원)	수요社 양산라인에서 성능 검증·개선 지원
반도체	트리니티 팹 구축 (’25~’27, 약 1조원)	반도체 新기술 검증용 미니팹 조성
바이오	공공 CDMO (위탁생산, 5개소 既구축)	바이오 공정 개발·실증·스케일업 지원

- 정부 R&D 등으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견 후보기업에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연계를 통한 후속 사업화 지원(기업당 최대 1.5억원)

□ **(생산)** 검증 완료된 우수기술에 대한 **융자·기금사업 연계** 지원 (중기부)

- 신뢰성·양산평가 통과 중견 후보기업이 中企 자금 신청 시 융자제한 우량기업 기준(신용평가 BBB등급 이상,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등) 예외 적용

□ **(스케일업)** 중기부 Jump-up(’26년 595억원) 우수기업을 예비 월드클래스 기업 형태로 이어받아 수출 컨설팅, 인력, 법률 등 지원 (중기부, 산업부)

- 예비 월클기업 우수기업은 **월드클래스 플러스**를 통해 기술역량 확보

* 월드클래스 플러스(’21~’33, 4,6345억원) : 총 150개사 지원(年 10개사 선정)

□ **(수출)**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등 우수기업을 ‘K-수출스타 500’과 연계하여 프리미엄 마케팅 및 무역관 밀착 지원 제공 (산업부, 중기부)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수출 10만불↑ 대상 바우처 지급, 금융·마케팅 우대(年 500社)

* K-수출스타 500(’26, 402억원) : 수출 500만불↑ 대상 마케팅·금융·인증 지원(年 100社)

② 초보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 中企 회귀 방지

□ (지원절벽 완화) 초보 중견기업까지 중소기업 특례 확대 (관계부처)

- (세제) 중견 진입기업에 3년간 中企 특별 세액감면 적용(중기업의 50%)
* 법인세 감면(소재지·업종별 상이) : (現) 중기업 5~15% → (改) 중견(초기 3년) 2.5~7.5%
- (R&D) 초보 중견기업이 연구인력 신규 채용시 연봉의 50% 지원(3년)
- (설비)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3년 주기) 비용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용 지원 및 정책금융 제공(이차보전 등)
- (벤처) 中堅 일부를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 포함하고, 벤처기업 특례 제도 활용 허용 검토

□ (스케일업 지원) 금융(펀드, 보증), M&A 등 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 (펀드) 중견기업 혁신펀드, 중견기업 밸류업펀드 신규 재원이 성장성 있는 초보 중견기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추진 (산업부, 금융위)

< 중견기업 대상 펀드 >

펀드명	모펀드 자원	모펀드 운용사	규모(누적)
중견기업 혁신펀드	산업R&D 전담은행	한국성장금융	(‘26) 2천억원 → (‘30) 5천억원
중견기업 밸류업펀드	민간 5대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26) 4.5조원 → (‘30) 7.2조원

- (보증) 中堅 보증을 위한 출연 자원 확대 검토 (산업부)
 - 중견기업 투자 수요를 조사하여 차년도 보증자금 운용계획에 반영
- (M&A) 中堅 CVC 규제 완화를 통한 M&A 활성화 (공정위, 중기부)
 - * CVC 13개社 중 중견기업은 3개社에 불과(일반지주회사 162개 중 중견기업 92개(57%))
 - 펀드별 외부자금 출자비중 제한 완화(40→50%)로 원활한 자본 유치
 - 해외투자 비중 확대(20→30%)를 통해 해외 원천기술 확보

③ 선도 중견(매출 3천억원 이상) : 도약기반 마련

- (해외 프로젝트 진출) 단독 수주가 어려운 시스템 단위의 해외 대형 사업에 선도 중견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 지원 (관계부처)
 - (기회 발굴) KOTRA, 수은, 해건협, 플산협 등이 수집하는 해외 발주 정보를 선도 중견에 실시간 제공 → 발주처 면담·현지 마케팅 연계
 - (컨소시엄 구성) 프로젝트 주관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정·기술요건 충족 협력업체 매칭(산업 데이터플랫폼^{후술} 內 공급망, 거래선, 기술정보 활용)
 - (입찰 준비) 시장개척 조사·분석, 타당성 조사(F/S) 등 입찰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비용 지원

<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 및 조사·입찰 지원사업 >

분야	지원기관	사업명	지원금액(보조율)
플랜트	산업통상부 (KOTRA·플산협)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최대 2억원(50%)
건설	국토교통부 (해건협)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최대 3억원(60%)
인프라· 도시개발	국토교통부 (KIND)	해외인프라·도시개발 F/S 지원사업	최대 5억원(80%) * 컨설팅 : 10억원(95%)
해외사업 일반	수출입은행	해외사업 조사·입찰지원(F/S)	최대 3억원(50%)

- (수주·이행)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수반되는 이행보증, 선수금환급 보증 우대 추진(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무보)
- (초격차 확보) 세계일류상품(세계시장 5위, 점유율 5% 이상) 선정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 확보를 지원하여 앵커형 중견기업 육성
 - * 세계일류상품 선정 현황('25) : 제품 기준 987개, 기업 기준 1,098개社
- 해외 진출실적과 연동하여 금융(무보·신보 등),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 (중견 졸업유예 도입) 대기업 최초 진입 시 5년간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연착륙 지원(중견기업법 개정)
 - * 중견기업 진입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5년간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 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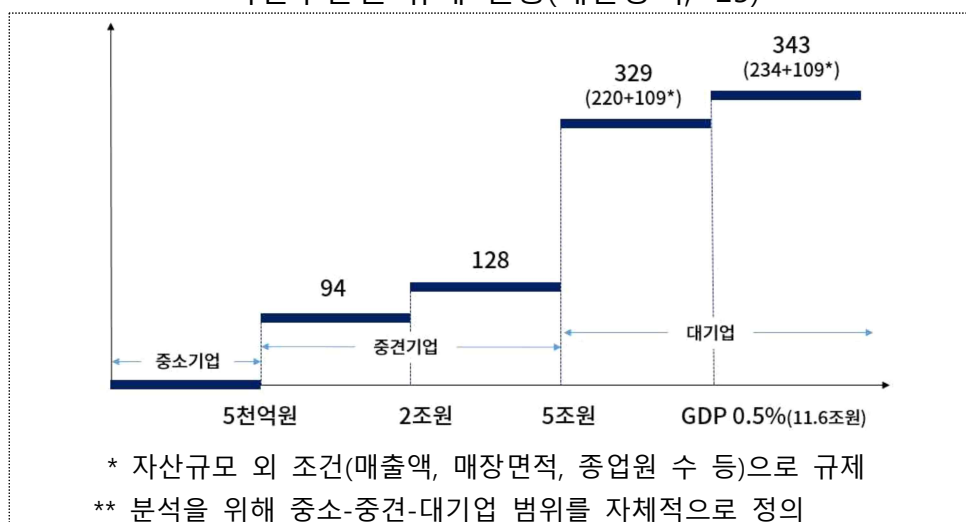
성장친화적 제도 재설계

□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완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성장사다리 역동성 복원 (관계부처)

○ 민간에서 발굴한 343개 규제(12개 법률, 대한상의)에 더해 64개 법률*을 추가 분석하여 총 88개 법률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조세연 연구(54개 법률, '24)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포함

< 자산구간별 규제 현황(대한상의, '25) >



○ 기업의 성장경로별(창업→투자→생산→판로→노무관리) 규제를 분석하여 경로별 적절한 규제부담 여부 확인 및 규제 합리화 ('26~'27년)

< 규제 합리화 과제 예시 >

유형	법률	규제 내용	문제점	개선안
불필요 행정규제	유통법	대규모점포 행정 규제 - 서류 보완요청(30일 이내) - 사전예고(대규모 60일 준대규모 30일)	기간 과다	전자공시를 전제로 기간 단축 검토
		대규모점포 내부절차 규제 - 관리규정 제·개정시 2/3 동의	의사결정 교착 가능성	경미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로 완화
	외부 감사법	자산 2조원 이상 기업(IFRS 미도입) 재무제표(90→70일)·감사보고서(120→90일) 제출기한 단축	감사 품질 저하 우려	일반 기업과 동일한 제출기한 적용
중견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규제	조특법	연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하여 투자·고용·세액공제 상향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하여 R&D·세액공제 상향	투자·고용 확대 애로 (도입 후 10년간 기준 동결)	매출기준 삭제 → 소 중견기업에 투자·고용·R&D 세액공제 확대

□ **(대-중소 이분법·제도 정비)** 대-중소기업으로만 구분하는 법령* 등을 전수조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개선안 마련('26.下)

* 例 1)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원사업자를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정의

例 2) 상생협력법 :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규정

○ 중견기업에게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혜택 또는 지원이 단절되며,

<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단절되는 지원 예시 >

관련법령	주요 내용
조특령 별표6 제2호다목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은 중소기업에만 한정
혁신제품시범구매 운영규정	▪ (혁신제품 시범구매) 조달사업법에 따른 혁신제품 정의에 기업 규모 구분이 없으나, 시범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에만 한정
이공계지원법 제16조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 시 보조금,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가능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8조	▪ (신재생설비 인증 지원) 중소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일부 지원

○ 입지, 교역 등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강화된 규제 적용 중

<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강화되는 규제 예시 >

관련법령	주요 내용
산업집적법 제20조	▪ (공장설립 제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시 중소기업보다 대·중견기업을 엄격히 규제 * (예) 과밀억제권역 : (중소) 기존공장 증설 및 도시형공장 신·증설 허용 (대·중견) 기존공장 3,000㎡ 이내 증설 및 부지내 증설, 첨단업종 기존공장 200%내 증설 허용
방위사업법 및 절충교역 지침	▪ (절충교역 가치승수 산정) 외국 방산업체가 절충교역 이행 시 중소기업에 가치승수 최대 300% 부여(중견·대기업은 150%)

전략 3

5극3특 지역기반 중견기업 확충

◇ 5극3특 성장엔진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성장엔진 중견기업”의 신속한 투자 확대 및 인력·인프라 지원 강화

* 성장엔진 중견기업 :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 중견기업이지만 지역 중소도시에서는 협력 중소기업들을 이끌며 대기업과 같은 위상을 지닌 ‘micro 대기업’ 육성

1 성장엔진 중견기업 역할 강화

□ (투자 인센티브) 5극3특 성장엔진, 3대 메가 프로젝트 필수 공급망 및 앵커 중견기업 투자 완성을 통한 성과·과실의 지역 내 순환

< 5극3특 성장엔진별 주요 중견기업 현황 및 투자계획 >

	중부권				
	성장엔진	기업수	주요 중견기업	역할	투자 계획
	반도체	40	하나마이크론, 원익머트리얼즈, 케이엔솔	협력사	1조 2,600억원
	바이오	22	HK이노엔, 메디톡스, 한올바이오파마	원청	1,600억원
	이차전지	12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 더블유씨피	협력사	4,000억원
	1조 8,200억원+				
	서남권				
	성장엔진	기업수	주요 중견기업	역할	투자 계획
	에너지	23	엠씨에너지, 해양에너지, 수완에너지	원청	2조 8,000억원
	반도체	1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협력사	1조원
	바이오	1	한국프라임제약	원청	1조원
	4조 8,000억원+				
	대경권				
	성장엔진	기업수	주요 중견기업	역할	투자 계획
	이차전지	11	엘엔에프, 피엔티, 씨아이에스	협력사	3조원
	반도체	12	탐엔지니어링, 에프엑스티	협력사	5,800억원
	로봇	3	에스엘, 대동, 삼익THK	협력사	2,400억원
	3조 8,200억원+				
	동남권				
	성장엔진	기업수	주요 중견기업	역할	투자 계획
	자동차	88	성우하이텍, 디와이덕양, DN오토모티브	협력사	1조 5,800억원
	조선	27	STX엔진, 케이조선	협력사	500억원
	우주·항공	6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복합소재, SNT모티브	협력사	120억원
	1조 6,420억원+				
	3특(강원, 전북, 제주)				
	성장엔진	기업수	주요 중견기업	역할	투자 계획
	바이오	9	파마리서치, 알에프바이오	원청	1조 6,500억원

- **(재정)** 성장엔진특별보조금으로 핵심 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도
 - * 권역별 성장엔진(안) 마련 및 성장엔진 7대 패키지 구체화 계획('26.8월 발표)
- **(금융)** “성장엔진 중견기업”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 * (예) 지방소재 중견기업 대상 대출승인절차 간소화 제도와 연계
- **(세제)** R&D·투자세액공제에 지역우대지수 도입(대·중견·중소 포함)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최대 1.5배 차등 지원 (재경부)
- **(의무 구매)** 앵커 대기업에게 해당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 추진 검토
 - * (예) 지역의무공동도급제 : 대형공사 입찰시 지역업체 지분 40~49% 구성 의무화

□ **(인재)** 지역 중견기업에 인력 공급 확대 (노동부·재경부·산업부·병무청)

- 지역 中堅의 청년 석·박사 및 기술전문가 채용 지원(연봉 40%를 3년 지원)
- 산업기능요원 확대 등 각종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역 中堅 우대

< 지역 중견기업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안) >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중소기업 → 비수도권 중견기업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액 상향
산업기능요원	■ 중견기업 배치 확대('25년 2명 → '26년 5명)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 기존 수도권 개최 → 年 2회 이상 비수도권 개최
K-테크패스	■ 우수해외인재 탐티어 비자(F-2-T) 및 정착지원 우대

□ **(인프라)** 지역 中堅 임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산업부·국토부·교육부·문체부)

- * 해외 앵커기업 지역거점화 벤치마킹 (ASML(네덜란드), 레고(덴마크), 트럼프(독일) 등)
- **(주택)** 지역 중견기업 임직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교육)** 과학고 정원 확대와 지정·설립 시 행정 지원과 함께,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및 기업 직원 자녀 선발 특례 확대 추진
- **(문화)**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산단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선도 산단 조성시 랜드마크 건립, 공장리뉴얼 등 사업 진행방향 우선 검토

2

중견기업 주도 지역 생태계 혁신

□ (상생형 기술혁신) 중견·중소 및 지·산·학(地·産·學) 상생 R&D 지원

- 지역 앵커 중견기업의 역량과 전·후방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융합하여 年 15개 중견·중소 컨소시엄의 기술개발 지원('26년 252억원)

-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개발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납품물량 보장, 매출 확대 등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도모

* 상생 유형 : ①아이디어-인프라 연계, ②제품-공정개선 연계, ③통합-요소기술 개발

- 지역 대학·연구소·지자체와의 개방형 혁신 지원('26년 72억원)

< 개방형 혁신 사례 - 대학-중견기업 채용 연계 >

- (개요) 충남 중견기업(코넥, 용산, 티에스이)-공주대 공동연구 및 맞춤형 교육 연계
- (기간·규모) '23~'27(5년, 진행中), 72억원(國 45, 地 9, 民 18)
- (성과) 석박사급 14명 채용('27 목표 : 67명), 매출 224억원 발생('31 목표 : 340억원)

□ (동반성장 자금) 중견·중소기업 상생자금 지원 확대 (중기부·산업부·재경부)

- (사업재편) 앵커기업(중견 등) 전환 수요 기반으로 동반 사업전환 시, 참여 중소기업에 전환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中堅에는 보증 지원

- (자금) 중견기업과 함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중진공 재도약지원자금, 바우처 등 지원

- (보증) 기업활력법에 의거하여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총자산액 5천억원 미만) 대상 기술보증 우대 지원 추진('26.下)

*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율 감면(0.4%p)

- (공제조합 설립) 중견기업 수익을 재원으로 위기 시 협력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가칭}파랑풍선 공제 설립 검토

↳ 협력업체의 추락방지 완충재 역할

* 납입 공제료에 대해 손금납입 및 법인세 감면, 조합 회원사에게는 中堅 전용사업 참여 등 혜택 제공 검토

3

지역 지식서비스 산업 高부가가치화

□ (서비스 R&D) 지식서비스, 제조-서비스 연계 등 지역의 高부가가치 서비스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서비스 산업 고도화

○ 4대 지식서비스 분야에 AI를 접목하여 지역 서비스 고도화 추진

* 지역 서비스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28~'32) : 총 499억원 (신규 기획 중)

< 지식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R&D 예시 >

분야	주요 내용	R&D 예시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프랜차이즈, 저작권, SW 등	AI 기반 K-컨텐츠 보호 기술
전문·사업	연구개발, 법률회계, 경영컨설팅, 광고, 엔지니어링, 검사인증 등	AI를 활용한 법조문 조회 및 법률해석 등 리걸테크 서비스
정보·통신	IT시스템 개발·운영, 플랫폼 등	스마트 교구 기반 학습 플랫폼
문화·여가	컨텐츠, 공연·전시, 기타 문화·여가 등	AR 활용 관광 도슨트 서비스

○ 지역 내 제조 가치사슬(R&D, 생산, 판매, 사용 등) 전반에 서비스를 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서비스 연계 지원

* 주요국 대비 제조과정에 투입된 서비스(중간재로서의 서비스) 비중이 낮음

□ (수출채널 확대) 지역의 내수용 유통 중견기업을 K-소비재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수출 캐리어로 육성

○ 유통기업·농어가·제조기업 공동으로 지역특화 PB상품 개발 추진

○ 지역 유통기업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 소비자 접점 확보 지원('26년 471억원)

□ (규제 프리존) 지역을 자율주행, 드론·로봇배송 등 서비스 新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지역 서비스 中堅 육성 촉진 (산업부, 국조실 등)

* 例) 로봇·드론배송 : 무인로봇 도로주행, 드론 야간비행 등 초광역 규제 합리화
→ 물류·운수 중견기업-로봇·드론기업 실증

○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앵커·협력기업 등 대상 규제특례 및 정책패키지 제공 (메가특구법 제정 등)

* ▲(메뉴판식 특례) 특구 내 효력이 배제·완화되는 규제,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특구 내 규제효력을 일시적 배제·완화,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실증 절차 개선

- ◇ 속도감 있는 AX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GX·SX 지원
- ◇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

1 중견 M.AX 생태계 조성

□ (중점 분야) 앵커형 중견기업*의 핵심·공통·시급 4대분야 AI모델 발굴

* 자동차, 조선, 방산 등 대기업 연계형이 아닌 독립적 기업으로서 독자적 AX 추진 필요

- 업계 수요가 많은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엔터프라이즈, 에너지 분야에 기업 수준별 표준화된 최적 AI모델 발굴*, 개발·실증 등 단계별 지원**

* M.AX 얼라이언스의 既 개발 AI모델 연계·협업

** 예시 : (기초) AI챗봇, (심화) 공정분석·제어, (고도화) 디지털트윈, 자동제어

< 앵커중견 4대분야 AI모델 예시 >

구분	대표 모델	비고
①소재부품	· 신소재발굴·물성예측, 소재부품 설계	제조 중견기업의 85%
②엔지니어링	· 도면판독, 건설시공, 가상공간 제어	상위 10개사 중 9개사가 중견
③엔터프라이즈	· 수요예측, 재고·물류 최적화, CRM 등	제조 중견 32%가 원청기업
④에너지	· 에너지 설비 예후진단, 안전예측 등	수출중견 19%가 CBAM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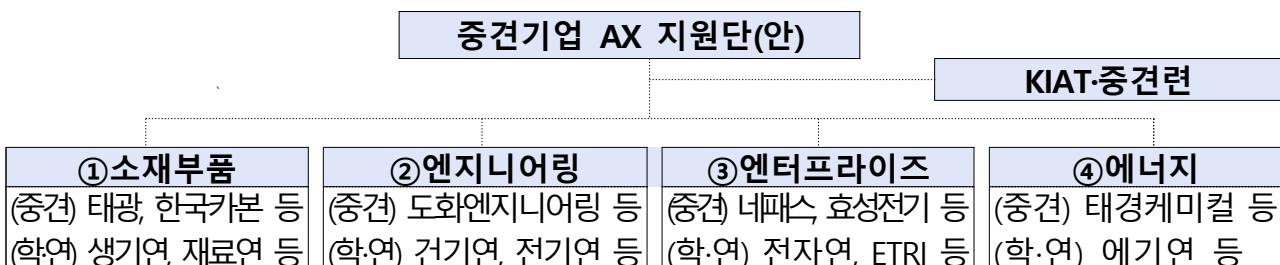
- '30년까지 제조 원청 중견기업 687개社 중 50%(343개社) 대상으로 중견기업 AI 전환 지원('중견기업 M.AX')

* 민관합동 약 2천억원 규모(기업당 평균 5억원) 재원 조성 추진

□ (확산 지원) 중견기업의 자율적 AI 전환·확산 여건 조성

- (중견 AX 지원단) '중견기업 AX 지원단' 구성하여 M.AX 얼라이언스 지원

* 기업 매칭, 역량 진단, 전략 수립, 애로 해소 등 원스탑 지원 추진



- (AX 펀드) 초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견 AX 펀드 조성**
 - * 기존 중견기업 혁신펀드('24, 2,030억원) 활용 또는 별도 전용 펀드 조성
- (역량 강화) 신규 전문인력 채용 및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 * 중견 핵심연구인력 지원('26년 12억원), 중견 핵심인재육성 아카데미 등 활용

2 산업성장형 GX 촉진

- (다배출 업종 GX) 탄소 다배출 업종 중견기업 대상 탄소중립 혁신기술 조기 확보*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수요 기반 R&D** 추진
 - * 산업GX플러스('27~'35년, 예산 협의중)
 - ** 글로벌 탄소규제 수요연계형 R&D('26년 20억원)
- (전환금융) 5대 다배출 업종*의 GX 전환경로를 구체화한 '업종별 GX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견기업 GX 자금 수요와 전환금융 연계**
 - *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시멘트), 정유, 전자조립(반도체, 디스플레이)
- (GX 설비투자) 용자·경매·파트너십 등 **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 확대**
 - (금융) 탄소중립 설비 및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중견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최대 10년) 저리(최저 1.3%) 대여
 -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사업('26년 1,720억원)
 - (경매) 중견기업의 감축효율 우수설비 투자에 대해 경매 방식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비용 보조 지원(기업별 최대 50억원)
 - *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26년 250억원)
- (ESG 대응 지원) 데이터 1회 입력으로 다수 원청사에게 Scope3 등 ESG 데이터를 제출가능한 **중견기업 중심 공급망 ESG 플랫폼** 구축
 - *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구축사업('27~'29년, 220억원)
- (SX(안전전환) 확산) 年 100개 중견기업에 화재·안전설비 투자 대출 이차보전(2%p, 기업별 대출 최대 20억원, '27 산업부 예산안 40.8억원)
 - * 우선지원 대상 : 화학물질, 1차금속,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식품제조 등 5대 고위험군

- **(산업 데이터플랫폼)** 중견기업 기초 데이터를 고도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단계, 업종, 기술수준, 공급망 관계 등 플랫폼 구축
 - * 데이터플랫폼 구축 : (1단계) '23~'25 30억원 → (2단계) '27~'30 100억원
 - 현행 사업자번호, 자본규모, 매출 등 기초 데이터 수준에서 R&D, 고용, 기술·특허, 성장단계, 수·위탁관계 등 추가 추진
 - * 중기부, 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등 협조
 - 범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 성장단계·업종별 분석 등 정책 강화
- **(중견기업 인식 제고)** 전통매체(TV 등) 외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뉴미디어 플랫폼(예: 유튜브, 엑스(舊 트위터)) 등 홍보 채널 다양화 추진
 - * 중견만리(KBS) : 6년간(19~24년) 우수 중견기업 97개사 방송 홍보
 - * 넥스트 챔피언의 비밀 병기(KBS) : 중견만리 후속 방송('25년~) → 유튜브 先공개
- **(지원 시스템 정비)** 中堅 정책 연구기관 신설 및 연계 시스템 강화
 - (중견기업 성장연구원) 정책 설계, 신규 제도 제안 검토, 산업계 의견 수렴, 해외 주요이슈 분석 등
 - (정책지원 시스템) 중견련, KOTRA, 무보, KIAT 등 7개 전문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AX, GX, 금융, 제도 등 지원
 - (중견기업 고충 처리) 중견기업연합회 內 중견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고충 처리 채널, 상담창구 개설
- **(중견기업법 개정)** 중소기업 특례 확대*, 중견기업 졸업유예 도입, 중견기업 성장연구원 신설 등('26.下 발의)
 - * 수탁 중견기업, 중견기업 기술 보호, 환경규제 이행 특례, 이공계 인력 지원 등

V. 추진 계획

추진과제	소관 부처·기관
【전략 1】 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	
① 차세대 IP 기술력 확보	
■ 도전적 데카-코어 프로젝트	산업부, KIAT
■ 유망·공백특허 선제확보 지원	지재처, 산업부
■ 국제표준기구 활동 및 표준필수특허 확보	지재처, 국표원
② 중견기업 中心 공급망 강화	
■ 중견업체 수요기반 병목기술 확보	산업부, KIAT
■ 입지·설비 투자금 지원(소부장 투자 보조금)	산업부
■ 구매자금 저리융자 지원(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경부
③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확대	
■ 내수 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	산업부, 법무부, 관세청 등
■ 대·중견·중소 동반 선단型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업부, 중기부
■ 유망시장 거점 확보를 통한 진출기반 마련	산업부, KIAT
【전략 2】 성장사다리 강화	
① 성장 지원 연계성 강화	
① 중견 후보기업	
■ 유망 중소기업 DB 구축	산업부, 중기부
■ 성장성있는 기업에 中企 R&D 집중 지원	중기부
■ 중견 후보기업 대상 인프라·실증 지원 강화	산업부, 중기부
■ 실증 우수기업 대상 중기부 융자기금사업 우대	중기부
■ Jump-up 프로그램과 월드클래스 플러스 지원 연계	산업부, 중기부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연계 K-수출스타 500 지원	산업부, 중기부
② 초보 중견기업	
■ 이공계 채용 및 부설연구소 설치·운영 특례	산업부, 과기부
■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비용 지원 특례	산업부, 중기부, 기후부
■ 온실가스 감축설비 비용 지원 특례	산업부, 중기부, 기후부
■ 초보 中堅에 중견기업 대상 펀드 집중 투자	산업부, 금융위
■ 중견기업 보증을 위한 출연 재원 확대 검토	산업부
■ CVC 규제 완화를 통한 중견 M&A 활성화	공정위, 중기부
③ 선도 중견기업	
■ 해외 대형 프로젝트 발주정보 제공 및 접촉 지원	산업부, 재경부, 국토부, 조달청 등
■ 해외 대형 프로젝트별 최적 협력사 매칭 지원	산업부, 중견련, KIAT
■ 해외 대형 프로젝트 입찰 지원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 등
■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시 보증 우대	무보, 수은
■ 세계일류상품 기업의 글로벌 앵커기업 성장 지원	산업부, KOTRA
■ 중견기업 졸업유예 신설	산업부
② 성장역진적 제도 재설계	
■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완화	관계부처
■ 대·중소기업으로만 구분하는 이분법 제도 정비	관계부처

추진과제	소관 부처·기관
【전략 3】 5극3특 지역기반 확충	
① 성장엔진 중견기업 역할 강화	
■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도	산업부
■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금융 우선 지원	산업부, 금융위, 산은
■ R&D·투자세액공제에 지역우대지수 도입	재경부
■ 앵커 대기업 지역 제품 의무구매 도입 검토	산업부
■ 지역 대학·연구소 연계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	산업부
■ 지역중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노동부
■ 지역중견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조정	재경부
■ 지역중견 산업기능요원 배치 확대	병무청
■ 중견 일자리박람회 비수도권 개최 확대	산업부, 중견련
■ 지역중견 K-테크패스 우대	산업부
■ 중견기업 임직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
■ 지역중견 과학고·자공고 특례입학 지원 검토	교육부
■ 산단기업협의체를 통한 문화산단 우선 협의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② 중견기업 주도 지역 생태계 혁신	
■ 지역 중견·중소 컨소시엄 R&D 지원	산업부
■ 지역 대학·연구소·지자체와의 개방형 혁신 지원	산업부
■ 지역 중견·중소 재도약지원자금 지원 확대	중기부, 산업부
■ 지역 중견·중소 기술보증 우대대상 확대	중기부, 산업부
■ 중견기업 공제조합 설립 검토	산업부
③ 지역 지식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화	
■ 서비스 중견 R&D 신설	산업부, KIAT
■ 지역 수출채널 확대(PB상품 개발,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산업부
■ 지역 서비스 新산업 규제 프리존(메가특구법 등)	산업부, 국조실 등
【전략 4】 미래 패러다임 대응	
① 중견 MAX 생태계 조성	
■ 앵커형 중견기업 맞춤형 4대 AI모델 발굴	산업부
■ 중견기업 AX 추진 지원단 구성·운영	산업부
■ 중견 AX 펀드 조성	산업부
■ 신규 전문인력 채용 및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산업부
② 산업성장형 GX 촉진	
■ 다배출 업종별 수요기반 GX 핵심기술 개발	산업부
■ 업종별 GX 로드맵 수립 및 GX 자금 공급	산업부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 지원	산업부
■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 및 설치비 보조	산업부
■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지원	산업부
■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구축	산업부
③ 성장지원 인프라 정비	
■ 산업 데이터플랫폼 구축	산업부
■ 중견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채널 다각화	산업부
■ 중견기업 성장연구원 신설	산업부
■ 중견기업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부
■ 중견기업법 개정(중견기업 졸업유예 등)	산업부